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조 성 훈[†]

안 창 일

이 현 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실존적 의미가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영적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는 까닭에, 실존적 의미와 관련된 모든 연구가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개인적 의미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scaro와 Rosen(2006)이 새로 개발한 영적 의미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요인구조 및 척도의 심리 측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는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이라는 두 개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들은 신뢰로운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으며, 적절한 수준의 변별타당도, 공존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월적 힘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불안증상과의 상관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영적 의미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영적 의미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실존적 의미, 영적 의미, 보편적 의미, 삶의 의미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자료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성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E-mail : lologos@hanmail.net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물음이 마치 가벼운 감기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을 것이고, 혹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성장통처럼 오랜 시간동안 뒹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을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우리를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하였다(톨스토이, 1987). 이처럼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하는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최근까지 경험주의를 표방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무시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느낌이나 주관적인 경험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대답하기 곤란한 철학적 물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Debats, Drost, & Hansen,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지난 20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실존적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 이론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일관성(coherence)과 목적에 대한 인식(sense)”이라는 정의에 일치할 보이고 있다.(Reker, 2000; Yalom, 1980).

실존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존적 사상이나 질문, 철학적 사유는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고대 스토아주의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Deurzen, 2002). 실존주의 철학은 구체적인 인간 존재의 배후에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불변하는 것(essence)에 초점을 맞춘 철학적, 과학적 체계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으로, 인간을 핵

심적인 특성들(essential quality)로만 파악하려는 행동들은 환원론(reductionism)이며, 이것은 온전한 인간성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Cooper, 2003).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이 심리학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유럽에서는 Freud의 환원론적, 결정론적, 기계론적 인간이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이 선택(choice), 창의성, 인간 잠재력과 같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제 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다(Yalom, 1980).

철학자 William Barrett(1959: Pyszczynski, Greenberg & Koole, 2004에서 재인용)은 실존주의를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인간적 상황(human situation)을 직면하는 철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와 같이 인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무의미의 문제를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로 본 사람이 Victor Frankl이며 그로 인해 실존적 의미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Frankl은 무의미와 공허감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감(existential vacuum)으로 인해 혼돈 경험(abyssexperience)을 겪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반영해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euzen, 2002).

실존적 의미는 단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발견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정신병리를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무의미함(meaninglessness)(Yalom, 1980)이나 실존적 고민

(existential concern)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Addis, Traux, & Jacobson, 1995),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Yalom, 1980).

실존적 의미는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Frankl(1998)은 의미치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미는 구체적인 한 개인이 지금 여기서 성취해야 할 과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개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보다 보편적인 의미, 혹은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alom(1980)에 따르면, 의미(meaning)와 목적(purpose)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의미가 일치성(coherence)과 관계된다면, 목적은 의도 및 작용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의 작용이나 역할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 의미는 인생에서의 개인의 '역할'이나 '목적'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물음이 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되게 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Reker, 2000; Yalom, 1980). 반면, 보편적 의미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물음으로 어떠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 혹은 이 세계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다 (Yalom, 1980). 이러한 맥락에서, Mascaro, Rosen 과 Morey(2004)는 보편적 의미를 영적 의미라고 불렀으며, '인생 그 자체'를 얼마나 일관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얼마나 자신이 믿고 있는 '인생 전체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힘(force)'으로부터 얻어 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영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 모두 심리적 안녕의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의미는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Chamberlain & Zika, 1988; Zika & Chamberlain, 1992), 불안과 우울 (Debats, 1990, 1996; Scannell, Allen, & Burton, 2002), 정서적 통제감 상실과 심리적 안녕(Zika & Chamberlain, 1992), 의기양양과 무망감(Harris & Standard, 2001),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 (Debats, Lubbe, & Wezeman, 1993)과 관련이 있다. 한편, 영적 의미는 희망과 정적 상관을, 우울, 불안, 반사회적 특성들과는 부적 관련이 있으며, 우울과 불안에서 Big Five가 설명하는 변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Mascaro et al., 2004). 또한 Mascaro와 Rosen(2006)의 연구에서, 영적 의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이 높았으나, 영적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영적 의미가 일상의 스트레스에 완충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같은 연구 결과들은 영적 의미가 심리적 안녕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개인의 성격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건강 전반에 폭넓은 긍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존적 의미가 국내에서는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데, 최근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김자경, 손정락, 2007),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김택호, 김재환, 2004), 대학생 집단에서는 자존감, 문제해결 확신, 그리고 자기 통제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최명심, 손정락, 2007). 그러나 실존적 의미가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인

적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로 Purpose in Life test(PIL; Crumbaugh & Maholick, 1964; 한미정, 최정윤, 1999)와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4, 2006;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가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영적 의미를 측정하는 척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scaro와 Rosen(2006)이 개발한 영적 의미 척도(Spiritual Meaning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분석 및 요인 구조를 살펴보고 변별타당도, 공준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별 하위요인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 간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종교의 유무, 종교 활동 및 신앙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14명(남 124, 여 90)을 대상으로 질문지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남자의 평균 연령은 21.77세(SD=2.97)이었으며, 여자의 평균 연령은 21.11세(SD=2.49)였다. 질문지 작성은 수업 시간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는데, 이에 앞서 연구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영적 의미

Mascaro와 Rosen(2006)이 개발한 영적 의미

척도(Spiritual Meaning Scale; SMS)를 본 연구를 위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원래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이 낮은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Mascaro et. al., 2004), 이후, 1개 문항이 추가되었다(Mascaro & Rosen, 2006).

도구의 번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심리학과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1명, 미국 심리학과 대학생 1명이 각자 15개의 영어 문항을 최대한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 각자가 번안한 것을 한데 모았다. 둘째, 번안한 것 가운데 동일한 문항에서 미묘하게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선별하였다. 셋째,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미국과 한국 문화에 모두 익숙한 S교회 교역자 한 분과 심리학과 교수 한 분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항을 번안하였다.

개인적 의미

Steger 등(2004)이 개발한 의미 척도를 원두리 등(200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7점 리커트 방식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라는 안정된 두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의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의미의 존재’ 요인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원두리 등(2005)의 연구와 동일한 .88이었다.

삶의 만족

개별성-관계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총체적인 만족감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Campbell(197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8개의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1문항으로 모두 9개의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8개 문항 총점과 9개 문항 총점의 상관계수가 .99로 매우 높아, 9개 문항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희망

본 연구는 특성희망 척도(Snyder et al., 1991) 12개 문항과 상태희망 척도(Snyder et al., 1996) 6개 문항을 강이영(200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8점 리커트 방식의 자기보고 검사를 사용하였다. 희망연구에서 두 척도를 합산하여 사용하거나(강이영, 2002; 김택호, 2004), 특성희망 척도만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희망을 성격적 특질(trait)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나, 두 척도의 상관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두 척도의 상관이 .8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두 척도를 구분 없이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희망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우울증상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네 개의 문장 중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문장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6이었다.

불안증상

불안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 & Steer(1988)가 개발한 21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권석만(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원호택과 김순화(1985)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를 최옥규(198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최옥규는 원래 검사지의 65개 문항 가운데, 우울을 반영하는 문항 15개와 주요사건의 범주에 포함되는 1개 문항을 제외시켰다. 총 49개 문항의 5점 리커트 방식의 자기보고 검사로, 각 문항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경험한 스트레스의 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는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6이었다.

종교 활동 및 신앙심

종교 활동 및 신앙심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한 문항의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사용하였다. 종교 활동 수준을 보고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종교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0점)과 ‘모두 참여함’(100점)이 양쪽 끝에 제시된

한 개의 수평선 위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준 만큼 선을 그었다. 신앙심의 경우는, “자신이 믿는 종교가 어느 정도 진리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믿지 않음’(0점)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함’(100점)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VAS에서는 10cm로 된 수평선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수평선이 이보다 다소 길었으며, 수월한 평가를 위해 0점과 100점 양 끝 사이에 10, 20과 같은 구분선을 10점 단위마다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LISREL 8.8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분석은 모두 SPSS 15.0을 통해 실시되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영적 의미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분석과 신뢰도 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적 의미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영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공존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 희망, 불안증상, 우울증상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설명력을 제하고서도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영적 의미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역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유무에 따라 영적 의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과 사후분석으로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했으며, 영적 의미와 종교 활동 및 신앙심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분석 결과, 15개 문항 가운데 3개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이 .3보다 낮았으며, 이 문항들이 특정한 요인으로 묶이지도 않아 전체 척도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문항들을 척도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12개 문항들의 경우에는 문항-전체 상관이 .46에서 .6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원칙도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표준화된 것이며 본 연구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3개 문항에서 나타난 낮은 문항-전체 상관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외된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1 참고), 5번 문항의 경우, ‘영적 관계’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소 생소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일관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 9번과 10번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는가를 물어보고 있어, 의미에 대한 물음인 동시에 부정적 사건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¹⁾.

1) 5번 문항의 경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과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의 문항-전체 상관이 각각 .05와 .29로 나타나, 종교 유무에 따라 문항에 대

표 1. 영적 의미척도의 문항분석결과 및 요인구조와 형태계수

	문항-전체 상관	Mean(SD)	형태계수		공통분
			A	B	
1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R)	.65	3.94(1.17)	.83		.56
2 우리들 각자는 이 세상에 특별한 기여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63	3.69(1.18)	.57		.49
3 나는 나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도록 정해져 있다.	.56	3.51(1.14)	.46		.40
4 인생은 본래 의미가 있다.	.65	3.91(1.14)	.67		.53
6 나의 내면을 깊이 살펴볼 때,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이 무 엇인지 알 것 같다.	.56	3.22(1.05)	.45		.37
7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58	4.21(.91)	.74		.45
11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	.59	3.30(1.03)	.62		.43
13 인간의 존재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나 의미는 없다. (R)	.68	3.86(1.21)	.69		.56
8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난 어떤 거대하고 초자 연적인 힘이나 절대자가 날 통해 일하는 걸 느낀다.	.51	2.60(1.41)		.69	.46
12 나는 특정한 활동, 직업, 봉사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67	2.70(1.20)		.66	.63
14 이 세상의 중심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51	3.49(1.11)		.50	.35
15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보다 더욱 크고 광대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다.	.46	3.26(1.05)		.67	.42
5 난 그 누구와도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R)	.27	3.85(1.18)			
9 인간의 행동이 흠이 있고, 종종 끔찍한 것을 볼 때, 우리 존 재는 거의 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27	3.48(1.17)			
10 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는다.	.23	4.11(.76)			

주. 아래 5, 9, 10번 문항은 척도 구성에서 제외되었음. (R): 역채점 문항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89$; 전체 설명변량=47.08%

$\alpha=.87$ $\alpha=.77$

A: 인생 자체에 대한 의미 지각, B: 초월적 힘에 대한 인식

Mascaro 등(2004)의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고유치(eigen value)가 1보다 높은 요인이 2개 추출되

한 이해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9번과 10번 문항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이나 종교를 가진 집단 모두에서 .2대의 문항-전체 상관이 나타나, 두 개 문항의 낮은 문항-전체 상관이 종교 유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었으나 parsimony와 scree test를 바탕으로 요인 수를 1개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요인구조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요인구조가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축요인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사각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시켰다. 분석 결과, scree test 및 고유치가 1.0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고유치가 5.42로 전체 변량의 40.87%를, 제 2요인은 고유치 1.27로 전체 변량의 6.21%를 설명하였으며, 두 요인 간 상관은 .61이었다. 개별 요인들에 속하는 문항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1요인은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으로, 제 2요인은 ‘초월적 힘의 인식’으로 이름 지었다.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9로 Mascaro와 Rosen(2006)의 연구(Cronbach's $\alpha=.91$)와 유사하였으며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 또한 각각 .87과 .77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LISREL 8.8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을 허용하였다(표 2 참고). 전체 12개의 문항 가운데 2개 문항에서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만족하지 못해, 문항들의 비정상성에 덜 민감한 Robust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통해 측정 모형에 대한 모수치들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 두 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의 모든 요인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하였으며($p<.001$), 전체 부합도도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Meyer, Gamst, Guarino, 2006). 또한, 단일 표본의 교차타당도 지수(ECVI)의 90% 신뢰구간 하한값이 Saturated Model 보다 낮아, 비록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설정된 2요인 모형을 다른 표본을 통해 교차타당화를 하지 못하였으나, 본 측정모형이 대학생 모집단에서의 요인구조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yrne, 1998).

변별타당도

영적 의미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표 3. 영적 의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개인적 의미와의 상관분석

	개인적 의미	Mean (SD)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67***	29.64 (6.44)
초월적 힘의 인식	.40***	12.05 (3.67)
영적 의미 전체 점수	.63***	41.70 (9.12)

*** $p<.001$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

Discrepancy	NFI	CFI	IFI	RMSEA	
				점추정	90% 신뢰구간
SB $\chi^2(53, N=215)=119.61, p<.001$.950	.971	.971	.077	.058-.095

주. SB χ^2 : Satorra-Bentler Scaled Chi-Square, N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CFI: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IFI: 증분부합치(Incremental Fit Index), RMSEA: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단일표본 교차타당도 지수(ECVI)의 90% 신뢰구간=.662~.959, ECVI for Saturated Model=.729, ECVI for Independence Model=11.251.

위해, 영적 의미 점수와 개인적 의미 점수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분석 결과, 영적 의미의 두 개 하위 요인인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 및 영적 의미 전체 점수는 개인적 의미와 각각 44.89%, 16.00%, 39.69%의 분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적 의미 척도가 개인적 의미와 유사점이 있으나 분명히 구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존타당도

실존적 의미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영적 의미 척도는 삶의 만족, 희망과는 정적 상관이, 불안 및 우울증상과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들 변인과 영적 의미와의 상관 분석 결과(표 4 참고), 영적 의미 전체 점수는 삶의 만족($r=.33, p<.001$), 희망($r=.43, p<.001$)과는 정적 상관을, 우울증상($r=-.24,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불안증상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8, ns$). 유사한 결과가 하위 요인들에서도 나타났다.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 모두 삶의 만족(각

각, $r=.35, p<.001$; $r=.20, p<.01$), 희망($r=.46, p<.001$; $r=.25,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은 우울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27, p<.001$), ‘초월적 힘의 인식’은 우울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r=-.12, ns$), 둘 모두 불안증상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각각, $r=-.12, ns$; $r=.00, ns$). 비록 Mascaro 등(2004)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영적 의미가 불안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원 척도 문항 가운데 3문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두 연구 결과의 직접적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Mascaro 등(2004)의 연구에서도 영적 의미와 불안증상의 상관이 낮았기 때문에($r=-.19$), 한국판 영적 의미척도와 원척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월적 힘의 인식’에 비해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이 삶의 만족, 희망,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두 요인 모두 희망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 우울 및 불안증상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이후 논의에서 언급하겠다.

표 4. 영적 의미척도와 삶의 만족감, 희망, 우울, 불안간의 상관

	삶의 만족	희망	우울증상	불안증상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35***	.46***	-.27***	-.12
초월적 힘의 인식	.20**(-.01)	.25***(-.04)	-.12(.04)	.00
영적 의미 전체 점수	.33***	.43***	-.24***	-.08

주. 괄호 안은 ‘인생 자체에 대한 의미 지각’을 통제된 상태에서 ‘초월적 힘에 대한 인식’과 각 변인들 간의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나타내며, 모두 $p<.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해석은 이후 논의에서 언급하였다.

** $p<.01$, *** $p<.001$

증분타당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 희망, 우울증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문희, 이정숙, 1995; 조금숙, 조증열, 2004; Graaf, Bijl, Ravelli, Smit, & Vollebergh, 2002; Ingram, Scott, & Siegle, 1999; Wilhelm, Kovess, Rios-Seidel, & Finch, 2004).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영적 의미가 이들 변인들에 대해 주관적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갖는 설명력을 제하고서도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영적 의미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설명력을 제하고서도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변량의 4.5%를, 희망에 대해서는 9.1%를, 우울증상에 대해서는 1.6%를 각각 추가로 설명하였다(표 5~7 참고). 영적 의미의 추가 설명력의 크기순서는 앞서 공존타당도 분석에서 영

적 의미가 희망, 삶의 만족, 우울증상, 불안증상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동일한데 이 역시 논의에서 함께 언급하였다.

영적 의미의 조절효과 분석

이전 연구(Mascaro & Rosen, 2006)에서 영적 의미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울 및 불안 증상에 대해 영적 의미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초월적 힘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불안증상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96, t = -2.00, p < .05$). 그러나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및 영적 의미 전체 점수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그림 1 참고).

표 5. 영적 의미의 고유 설명력을 알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삶의 만족

모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df
1	삶의 만족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20	25.55***	2, 211
2	삶의 만족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영적 의미 전체점수)	.24	21.99***	3, 210

주. $\Delta R^2 = .045, F(1, 210) = 12.11, p < .01$.

*** $p < .001$

표 6. 영적 의미의 고유 설명력을 알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희망

모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df
1	희망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22	28.94***	2, 211
2	희망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영적 의미 전체점수)	.31	30.62***	3, 210

주. $\Delta R^2 = .091, F(1, 210) = 26.67, p < .001$.

*** $p < .001$

표 7. 영적 의미의 고유 설명력을 알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우울증상

모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df
1	우울증상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20	26.72***	2, 211
2	우울증상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영적 의미 전체점수)	.22	19.54***	3, 210

주. $\Delta R^2 = .016$, $F(1, 210)=4.31$, $p<.05$.

*** $p<.001$

표 8. 영적 의미의 조절효과 분석¹⁾

	우울증상		불안증상	
	B	t	B	t
스트레스×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30	.98	-.12	-.02
스트레스×초월적 힘의 인식	-.08	-.23	-.96	-2.00* ²⁾
스트레스×영적 의미 전체 점수	.22	.69	-.40	-.90

주. 1) 표의 간략화를 위해 상호작용항(product term)의 비표준화계수와 t값만 제시하였다. 2) 불안증상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스트레스와 ‘초월적 힘의 인식’의 비표준화계수는 각각 3.31($t=6.65$, $p<.001$), .08($t=.15$, ns) 이었다.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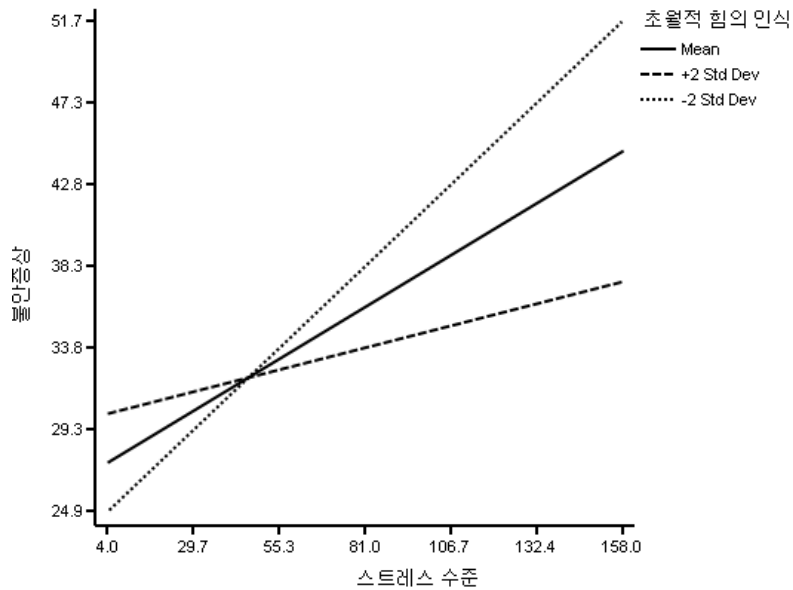


그림 1. ‘초월적 힘의 인식’의 조절효과

영적 의미척도와 종교와의 관련성

비록 영적 의미를 종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Yalom, 1980), 영적 의미의 구성개념을 생각해볼 때, 영적 의미 수준이 종교유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체 연구 참여자 가운데, 자신의 종교여부에 응답한 142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영적 의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생 자체의 의미 인식’과 ‘초월적 힘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 9와 10 참고). 또한, 개별 요인과 종교 활동 및 신앙심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여부에 응답한 142명 가운데 ‘종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64명(45.1%)이었으며, ‘기독교’는 43명(30.3%), ‘불교’는 18명(12.7%), ‘천주교’는 16명(11.3%), ‘기타’는 1명(0.7%)였다. MANOVA 분석 결과, 종교 유무에

따라 영적 의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Wilk's Lambda=.86, F(2, 139)=11.55, p<.001, partial η^2 =.143), 사후 분석 결과, 종교를 가진 집단은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1, 140)=9.45, p<.01, η^2 =.063, F(1, 140)=22.86, p<.001, η^2 =.140). 상관분석 결과, 영적 의미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인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초월적 힘의 인식’은 종교 활동과 신앙심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종교

표 11. 영적 의미와 종교 활동 및 신앙심과의 상관 분석

	종교	
	활동	신앙심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32***	.34***
초월적 힘의 인식	.57***	.59***
영적 의미 전체 점수	.46***	.48***

***p<.001

표 9. 종교유무에 따른 영적 의미 수준차를 알기 위한 다변량분석(MANOVA)

Source	Wilk's Lambda	F(2, 139)	partial η^2
영적 의미	.86	11.55***	.143

***p<.001.

표 10. 종교유무에 따른 영적 의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

Source	Mean(SE)		Sum of Squares	F(1, 140)	η^2
	비종교집단	종교집단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	27.48(.83)	30.94(.75)	418.80	9.45**	.063
초월적 힘의 인식	10.66(.44)	13.47(.40)	297.19	22.86***	.140

p<.01, *p<.001.

활동의 경우, 각각, $r=.46$, $r=.32$, $r=.57$, $ps<.001$; 신앙심의 경우, 각각, $r=.48$, $r=.34$, $r=.59$, $ps<.001$). 주목할 점은, 종교 활동, 신앙심 모두에서 ‘초월적 힘의 인식’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는데, 종교가 대체로 신(神)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초월적 힘의 인식’이라는 요인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논 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실존적 의미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실존적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의미 척도가 ‘개인적 의미’에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 갖는 개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인생 그 자체’를 얼마나 일관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얼마나 자신이 믿고 있는 ‘인생 전체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힘(force)’으로부터 얻어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영적 의미 척도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척도 15개 문항 가운데 전체 척도와의 관련성이 낮은 3개 문항을 척도구성에서 제외하였다. 총 12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이라는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개별 요인 및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이어, 2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

합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단일 표본에 대한 교차타당도 지수는 2요인 모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영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의 상관 분석을 통해 영적 의미 척도가 개인적 의미와는 구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이 ‘초월적 힘의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적 의미와 상관이 높았는데, 이는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개인적 의미의 구성개념이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공유 분산이 44.89%인 점을 고려할 때,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 인식이 분명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영적 의미 척도 및 하위 요인들은 삶의 만족, 희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울증상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실존적 의미에 대한 이전 연구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가 적절한 수준의 공존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적 의미 전체 점수 및 개별 하위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희망 및 우울증상, 불안증상과의 단순상관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희망>삶의 만족>우울증상>불안증상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기분증상보다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월적 힘의 인식’에 비해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이 상기에 언급한 변인들과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영적 의미의 정의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초월적 힘의 인식’을 통해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지각함으로써

써, 영적 의미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적용될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을 통제된 상태에서 ‘초월적 힘의 인식’과 각 변인들 간의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살펴보았다(표 4 참고). 분석 결과, 이전과 달리 삶의 만족 및 희망과 ‘초월적 힘의 인식’의 상관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각각, $r = -.01$, ns; $r = -.04$, ns), 우울증상과의 상관계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r = .04$, ns). 이는 ‘초월적 힘의 인식’이 삶의 만족, 희망 등 심리적 구성개념들에 대해 갖는 긍정적 관련성이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Mascaro 등(2004)이 언급한 영적 의미의 정의와 일치될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삶의 의미가 매개한다는 국내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손은정, 홍혜영, 이은경, 200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설명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적 의미가 삶의 만족, 희망,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가 적절한 증분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지지되었다. 또한,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초월적 힘의 인식’이 스트레스가 불안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적 의미가 인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경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영성(spirituality)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Fry, 2000; Koenig, 2009; Nelson, Rosenfeld, Breibart, & Galiotta, 2009)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영적 의미 수준 및 두 개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종교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들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최명심, 손정락, 2007).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 수가 충분치 못한 관계로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교차타당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여러 표본을 통한 교차타당도 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칙도가 대학생에 대상으로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일차적으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구조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조차 낮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요인 구조에 대한 반복 검증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Prooijen & Kloot, 2001)²⁾,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은 몇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은 확인적 요인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비해 더욱 간결한(parsimonious)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 척도의 요인 구조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였다는 점,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단일 표본 교차 타당도 지수(ECVI)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2요인 측정모형이 대학생 모집단에서의 요인 구조를 적절히 대표한다는

2) 이들의 연구에서 이미 출판된 10개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7개의 논문에서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낮은 적합도(poor fit)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적 의미 척도의 요인구조가 향후 다양한 연령 및 임상 집단들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칙도 문항들 가운데 3문항이 전체 문항과 관련성이 낮은 관계로 제외되었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미국과 달리 2개 요인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초월적 힘의 인식’ 요인이 다소 적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관련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전체 척도의 문항 수를 줄여 검사를 더욱 간소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5개 문항에서 .87이었던 내적 일치도가 .89로 소폭 향상되었다. 또한,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의 하위 요인구조를 밝히고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영적 의미가 그 정의와 같이 실제로 ‘인생 자체의 의미 지각’과 ‘초월적 힘의 인식’이라는 두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두 개 요인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실존적 의미가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Frankl, 1988; Yalom, 1980),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개인적 의미를 측정하는 척도들만 번안되거나 타당화 되었기 때문에, 실존적 의미와 관련된 모든 연구가 개인적 의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결과적으로 실존적 의미가 정신 건강 및 긍정·부정 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가 타당화됨으로써, 이전까지는 실존적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개인적 의미만을 다루었다면,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일관성, 혹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의의라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를 생각해볼 때, 우선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다른 연령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2요인 모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월적 힘의 인식’ 요인이 다소 적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내적 일치도가 신뢰로운 수준이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신뢰도를 더 높이는 노력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영적 의미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들이 정신 건강 영역의 다양한 주제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어떤 설명력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참고문헌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Queensland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자경, 손정락 (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1-19.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465-490.
- 문희, 이정숙 (1995). 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불편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4, 27-44.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제작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빅터 프랭클 (1998).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김영철 역). 경북: 분도.
- 손은정, 홍혜영, 이은경 (2009).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465-480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눈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211-225.
- 원호택, 김순화 (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학생 연구*, 20, 43-50.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27-41.
- 최명심, 손정락(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이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951-967.
- 최옥규 (1989).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서 상황평가의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톨스토이 (1987). *참회록*. 심이석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 한미정, 최정운 (1999).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 167-181.
-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dis, M. E., Traux, P., & Jacobson, N. S. (1995). Why do people think they are depressed?: The reasons for depression questionnaire. *Psychotherapy*, 32, 476-483.
- Barrett, W. (1959). What is existentialism? *Saturday Evening Post*, pp. 45, 126, 129-130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hamberlain, K., & Zika, S. (1988). Religiosity, life meaning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411-420.
- Cooper, M. (2003). *Existential Therapies*. Thousand Oaks, CA: Sage.
- Crumbaugh, J., & Maholick, L.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200-207.
- Debats, D. L. (1990). The Life Regard Index: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s*, 67, 27-34.

- Debats, D. L. (1996). Meaning in life: clinical relevance and predictive powe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503-516.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5.
- Debats, D. L., Van Der Lubbe, P. M., & Wezeman, F. R. A. (1993). On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Life Regard Index (LRI): A measure of meaningful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337-345.
- Deurzen, V. E. (2002). *Existential Counselling & Psychotherapy in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 Fry, P. S. (2000). Religious involvement, spirituality and personal meaning for life: existenti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mmunity-residing and institutional care elders. *Aging & Mental Health, 4*, 375-387.
- Graaf, R. Bijl, R. V., Ravelli, A., Smit, F., & Vollebergh, W. A. (2002). Predictors of first incid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Findings from the Netherlands Mental Health Survey and Incidence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 303-313.
- Ingram, R. E., Scott, W., & Siegle, G. (1999). Depression: Social and cognitive aspects. In T. Millon, P. H. Blaney, & R. D. Davis (Eds.), *Oxford text book of psychopathology*. New York: Oxford.
- Koenig H. G. (2009). Research on Religio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 283-291.
- Mascaro, N., & Rosen, D. H., (2006). The role of existential meaning as a buffer against str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6*, 168-190.
- Mascaro, N., Rosen, D. H., & Morey, L. C., (2004). The development, construc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Spiritual Meaning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845-860.
- Meyer, L. S., Gamst, G., & Guarino, A. J. (2006). *Applied multivariate research: Design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Nelson, C. J., Rosenfeld, B., Breitbart, W., Galietta, M. (2002). Spirituality, Religion, and Depression in the Terminally Ill. *Psychosomatics, 43*, 213-220
- Prooijen, J. V., & Kloot, W. A. V. (2001). Confirmatory analysis of exploratively obtained factor struct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 777-792.
- Pyszczynski, T., Greenberg, J., & Koole, S. L. (2004). Exploring the human confrontation with reality. In J. Greenberg, S. L. Koole & T. Pyszczynski (Eds.), *Handbook of experimental psychology*. NY: The Guilford Press.
- Reker, G. T. (2000). Theoretical perspectiv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existential meaning. In G. T. Reker & K. Chamberlain (Eds.), *Exploring existential meaning: Optimizing human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Thousand Oaks, CA: Sage.
- Scannell, E., Allen, F., & Burton, J. (2002). Meaning in life and positive and negative well-being.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 93-112.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mey, P. (1991). The will and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Sympson, S. C., Ya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5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 Wilhelm, K., Kovess, V., Rios-Seidel, C., & Finch, A. (2004). Work and mental healt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866-873.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Zika, S., & Chamberlain, K. (1987). Relation of hassles and personality to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55-162.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

1차원고접수 : 200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9. 12. 12.

최종게재결정 : 2009. 12. 21.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Meaning Scale

Sung-Hoon Cho

Chang-Yil Ahn

Hyeon-Soo Lee

Korea University Mental hospital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Mental hospital

Even though spiritual mean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fully understand existential meaning, all studies concerning existential meaning in Korea have been focusing solely on personal meaning. Main reason for that is there is no validated scale for measuring spiritual mean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Meaning Scale (SMS) which had been originally invented by Mascaro and Rosen (2006). After translating the scale, factorial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SMS-Korean version had stable two-factor structure ('meaning of life itself' and 'awareness of transcendent force') with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discrimina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transcendent force was, the 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nxiety was reduced significantly. Lastly, the SMS score of the group with religion was slightly higher than non-religion group.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future study for spiritual mean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existential meaning, spiritual meaning, cosmic meaning, meaning of life*